

잡아함 107. 장자경

날짜: 7월 30th, 2024

출처: <http://www.dhamma.kr/wp/?p=17736>

이와 같이 내가 들었다.

어느 때 부처님께서는 박가국 숨수마라기나의 사슴 동산 깊은 숲속에 계시었다. 그 때에 나쿨라 장자는 나이 백이십 세였다. 나이가 많아 기관은 허물고 파리하고 쇠약하여 병에 괴로워하고 있었다. 그러면서도 그는 세존과 전부터 존경하고 친히 아는 비구들을 뵈옵고자 하여 부처님 계신 곳에 나아와 발에 예배하고 물러나 한 쪽에 앉아 부처님께 여쭙었다.

“세존이시여, 저는 나이 많고 쇠약하며 병에 괴로워하면서도 스스로 애를 써서 세존님과 또 전부터 존경하고 친히 아는 스님들을 뵈오려 왔나이다. 원하옵나니 저를 위해 설법하시어 긴 밤 속에서 안락하게 하여 주소서.”

그 때에 세존께서는 나쿨라 장자에게 말씀하시었다.

“착하다! 장자여, 너는 실로 나이 많아 기관이 허물어지고 쇠약하여 병에 괴워하면서도 능히 스스로 애를 써서 여래와 또 다른 존경하고 친히 아는 비구들을 찾아왔구나. 장자여, 마땅히 알라. 괴롭고 병든 몸이지마는 항상 괴롭고 병들지 않는 마음을 닦아야 하느니라.”

그 때에 세존께서는 나쿨라 장자를 위해 가르치고 기쁘게 하신 뒤에 잠자코 계시었다. 나쿨라 장자는 부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기뻐하면서 예배하고 물러갔다.

때에 존자 사리불은 세존에게서 멀지 않은 어떤 나무 밑에 앉아 있었다. 나쿨라 장자는 존자 사리불이 있는 곳으로 가서 머리를 조아려 그 발에 절하고 물러나 한 쪽에 앉았다. 때에 존자 사리불은 장자에게 물었다.

“너는 지금 온 몸이 평화롭고 얼굴빛이 선명하구나. 세존에게서 어떤 깊은 법을 들을 수 있었는가.”

나쿨라 장자는 아뢰었다.

“오늘 세존께서는 저를 위해 설법하시어 가르치시고 기쁘게 하시고 <단 이

술>법으로써 내 몸과 마음에 쏟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지금 온 몸이 평화롭고 얼굴빛이 선명하게 되었습니다.

“세존께서는 어떤 법을 말씀하시어 가르쳐 기쁘게 하시고 <단 이술>로 윤택하게 하시었던가.”

“나는 아까 세존께서 계시는 곳에 나아가 세존께 여쭙었습니다. ‘나는 나이 많고 쇠약하여 병에 괴로워하면서도 스스로 애를 써서 세존님과 또 존경하고 친히 아는 비구님들을 뵈오려 왔나이다’고. 부처님께서는 내게 ‘착하다! 장자여, 너는 실로 나이 많고 쇠약하여 병에 괴로워하면서도 능히 스스로 힘써 나와 또 전부터 존경하는 비구들을 보러 왔구나. 너는 지금 그 괴롭고 병든 몸이지마는 항상 괴롭고 병들지 않는 마음을 닦아야 하느니라’고 말씀하시었습니다. 세존께서는 저를 위해 이러한 법을 말씀하시어 가르치시고 기쁘게 하시고 <단 이술>으로써 윤택하게 하시었습니다.”

존자 사리불은 장자에게 말하였다.

“너는 왜 아까 세존께 거듭 여쭙지 않았는가. 즉 ‘어떤 것이 괴롭고 병든 몸이며 괴롭고 병든 마음입니까. 어떤 것이 괴롭고 병든 몸이며 괴롭고 병들지 않는 마음입니까’고.”

장자는 대답하였다.

“나는 그 때문에 존자에게 나왔습니다. 원하옵건대 저를 위해 그 법의 요긴한 점을 간략히 말씀하여 주십시오.”

존자 사리불은 장자에게 말하였다.

“착하다! 장자여, 너는 이제 자세히 들으라. 너를 위해 설명하리라. 어리석고 무식한 범부들은 물질의 모임과 물질의 멸함과 물질의 근심과 물질의 맛과 물질을 떠나기를 참다야 알지 못한다. 참다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물질을 사랑하고 즐겨하여 ‘물질은 <나>다. 이것은 <내 것>이다’라고 말하면서 그것을 거두어 취하다가 만일 그 물질이 무너지거나 달라지면 마음도 그 따라 움직여 고통과 번민이 생긴다. 고통과 번민이 생긴 뒤에는 두려워하고 마음이 막히며 돌아보고 근심하며 잊지 못한다. 느낌·생각·지어감·의식에 있어서도 또한 그와 같나니, 이것을 몸과 마음의 괴롭고 병든 것이라 하느니라. 어떤 것을 몸은 괴롭고 병들었으면서 마음은 괴롭고 병들지 않은 것이라하는가. 많이 아는 거룩한 제자들은 물질의 모임과 물질의 멸함과 물질의 맛과 물질의 근심과 물질을 떠나기를 참다야 안다. 참다야 안 뒤에는 그것을 사랑하거나 즐겨하지 않아서 ‘물질은 <나>다. 이것은 <내 것>이다’라고 보지 않는다. 그러므로 그 물질이 혹 변하거나 달라지더라도 마

음이 그것을 따라 움직여 괴로움과 번민이 생기지 않는다. 마음이 그 따라 움직여 괴로움과 번민이 생기지 않으면, 두려워하거나 마음이 막히거나 돌아보거나 애착하지 않는다. 느낌·생각·지어감·의식에 있어서도 또한 그러하나니 이것을 몸은 괴롭고 병들었으나 마음은 괴롭고 병들지 않은 것이라 하느니라.”

존자 사리불이 이 법을 설명하자 나쿨라 장자는 법눈이 깨끗하게 되었다. 그 때에 나쿨라 장자는 법을 보고 법을 얻고 법을 알고 법에 들어가 모든 의심을 벗어나서, 남의 가르침을 받지 않고 바른 법 안에서, 마음에 두려움이 없게 되었다. 그는 곧 자리에서 일어나 옷을 여민 뒤에 공경히 합장하고 존자 사리불에게 아뢰었다.

“나는 이미 뛰어나고 이미 건넜습니다. 나는 이제 부처님과 법과 승가의 삼보에 귀의하여 우바새가 되겠습니다. 나를 인증해 주십시오. 나는 지금 부터 목숨이 다할 때까지 삼보에 귀의하겠습니다.”

그 때에 나쿨라 장자는 존자 사리불의 말을 듣고 기뻐하면서 예배하고 물러갔다.

본 문서는 dhamma.kr에서 수집한 내용입니다.